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산업별 효과 분석

- 한중 FTA의 양허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수록, 한국의 실질 GDP증대와 경제적 생산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중 FTA에서 한국에게 우호적인 양허가 시행될 경우,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정밀화학, 철강 등의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전망.
- 다만 각 산업 부문에서의 한중간 무역구도 및 수출입 가격 탄력성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영향은 차별화될 수 있음.

(1) 2014년 7월 3일 중국의 시진핑 방한 이후, 양국의 제 12차 한중 FTA를 통한 진일보된 협의 (상호간의 관세율 조정) 도출 가능.

- 2014년 5월 제 11차 한중 FTA 협상에서는, 상품 2차 양허안 (offering) 교환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 현재 한중 FTA의 연내 타결 추진중. 2014년 1월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총수출규모 대비 24.7%, 한국 실질 GDP대비 12.2%(2013년 기준)로 확인. (그림1,2 참조)
- 중국 제조업 PMI지수와 한국의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높은 상관관계(2010년 1월~2014년 5월 기간 상관관계수: 0.68)를 보임. (그림3 참조)
- 대중국 무역관계가 우호적으로 협상될 경우, 한국의 산업별 성장세 가속화 및 한국 실질 GDP증대가 가능할 전망.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간의 낮은 수준의 양허 관계가 성립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 동안에 0.95%, 발효 후 10년 동안에 2.28% 개선될 것으로 추정. (그림 4 참조)
- 상기 시나리오 분석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 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는, 한국의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 동안 1.25%증가, 발효 후 10년 동안 3.04%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즉 한중 FTA의 양허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수록, 한국의 실질 GDP증대와 경제적 생산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 호주와 중국의 FTA 공동연구 결과(Model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an Australia-China FTA (2005))에 따르면, 호주 - 중국 간의 FTA 시행시, 향후 호주의 실질 GDP는 '상품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효과(32.4%), 투자 자유화 효과(29.7%), 기타효과(29.7%)' 등의 요인으로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 즉 한중 FTA가 실시될 경우, 관세율 조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득(benefit)과 투자 자유화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을 시사함. (표1 참조)

(2) 현재의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율 분석을 위해 기본세율, WTO 일반 협정관세율, 이태무역 협정관세율(APTA)을 종합 적용하여 상호간의 관세율을 분석 (표2 참조)

-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 9.2%
- 한국의 대중국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4.6%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 9.2%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이용한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 3.2%
- 평균적으로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이 낮은 편임(1.4%p).

(3) 각 품목별 한국/중국의 가중평균 관세율 분석 (표2 참조)

- 디지털가전: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4.5%),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5.7%)
- 비금속광물제품: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7.7%),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10.2%)
- 생활용품: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6.2%),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7.2%)
- 자동차: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7.0%),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13.4%)
- 정밀화학: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5.3%),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5.9%)
- 철강: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0.8%),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5.6%)
- 향후 중국의 대한민국 관세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효과(세율인하에 따른 수요 증대)를 볼 수 있음.
- 또한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정밀화학, 철강 등의 산업의 관세율은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3.2%)에 비해 높고,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보다도 높아, 이에 따른 가격 효과 및 상대적 수요증분(중국-한국 간의 상호 무역구도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결국 한중 FTA에서 한국에게 우호적인 양허가 시행될 경우,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정밀화학, 철강 등의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전망.
- 다만 각 산업 부문에서의 한중간 무역구도 및 수출입 가격 탄력성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영향은 차별화될 수 있음.

(4)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한국의 부문별 관세율 비교 (표3, 표4 참조)

- 한국의 전부분 평균 관세율은 8.6%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의 관세율 평균(4.3%)보다 높음.
- 10부(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관세율: 5.1%) 산업에서만,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의 FTA체결 국가(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의 평균(9.1%)보다 낮음.
- 그 외의 산업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중국의 FTA 체결 국가(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보다 높아, 이에 따른 상대적 교역의 수혜를 볼 수 있음.

(참고)

- 기본세율: 관세법 제50조에 의해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수입물품 원칙 적용)
- WTO 일반협정관세율: WTO 가입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양허 관세율(WTO 정회원국, 편입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등 대부분 국가에 적용)
- 아태무역협정관세(APTA): 아태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적용대상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 실질 관세율 추정: 중국과의 협정관세 중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관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

로 정의(Min[기본세율, WTO 일반협정관세, 아태무역협정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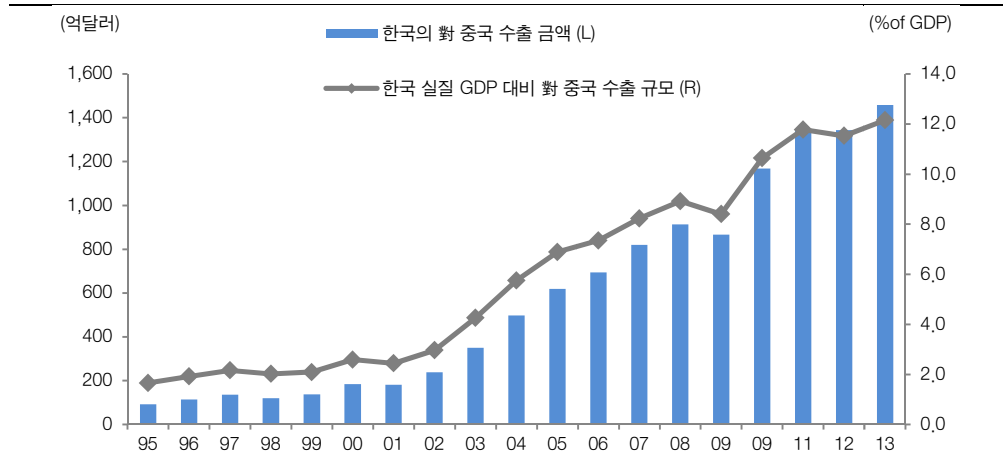
- 가중평균관세율: 현재 한국과 중국의 무역품목에 대한 HS code가 다르므로 인해, 품목군별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관세율을 파악하고, 품목의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화한 관세율. 동 가중평균관세율은 한중 FTA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음.

(5) 위안화 직거래 허용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표5 참조)

- BIS(국제결제은행)의 2013년 4월 자료(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화 중에서 금융 결제를 통한 선물/현물/옵션 등에 대한 체결의 비중은 달러화(44%), 유로화(17%), 엔화(12%), 파운드화(6%), 위안화(1%)순임.
- 거시적 관점에서 위안화의 직거래 대상 국가(한국 포함) 확장시에, 위안화의 결제통화로서의 위상 및 위안화 체결 비중은 확대될 듯.
- 미시적 관점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달러화로 결제된 비중이 85.8%(2014년 3월 기준, 420억 달러)이고, 위안화 결제 비중이 0.4%(2014년 3월 기준, 2억 달러)인 점을 고려.
- 즉 수출 결제시에 달러화의 공급물량은 축소되고, 위안화에 대한 현물/선물 스왑거래 규모는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내환시에서 달러화의 강세(원/달러 환율 상승)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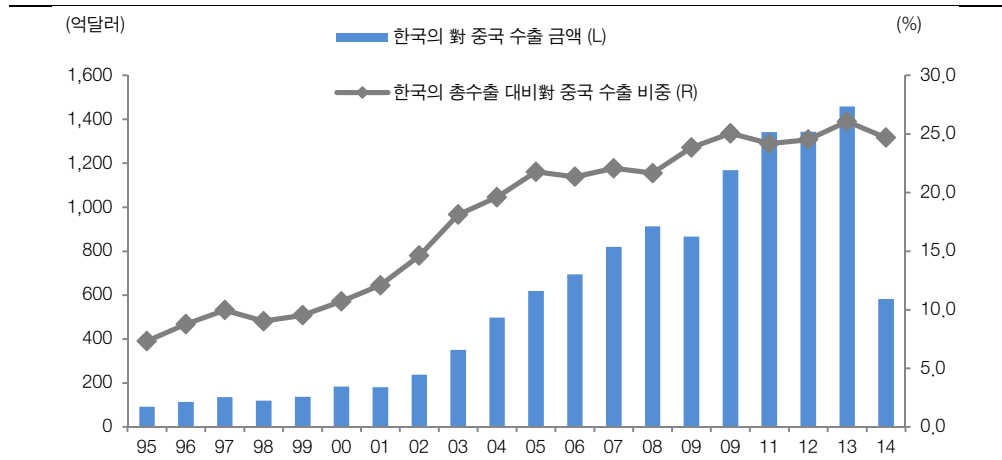
(참고)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써, 대중국 교역을 통한 달러화 공급 물량은 45.9억 달러임(2014년 3월 기준). 즉 동 규모는 2014년 3월의 달러화 결제금액 중에서 10.8%의 비중임(45.9억 달러/ 426.5달러).

〈그림1〉 한국의 對 중국 수출금액과 실질GDP 대비 對 중국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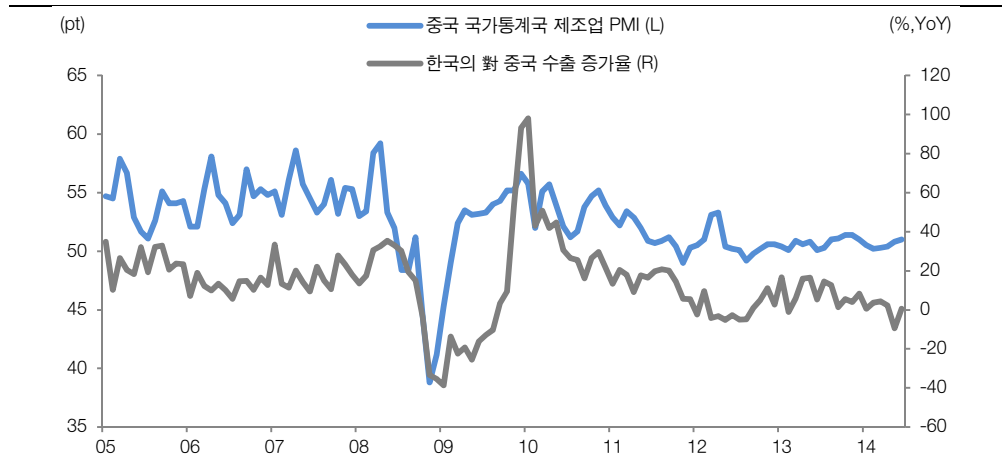
자료: KITA, HMC투자증권

〈그림2〉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금액과 한국 총수출 대비 對 중국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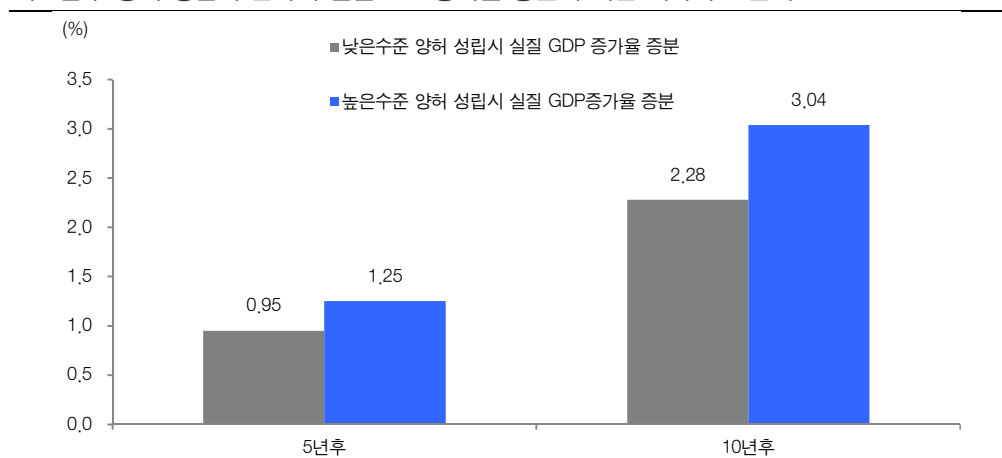
자료: KITA, HMC투자증권
 주) 2014년은 1월 ~ 5월 누적 기준

〈그림3〉 중국 제조업 PMI(국가통계국)지수와 한국의 對 중국 수출 증가율



자료: CEIC, KITA, HMC투자증권

〈그림4〉 양허 성립시 한국의 실질 GDP증가율 증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MC투자증권
 주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축차 동태 CGE모형 (Recursive dynamic GTAP Model)"을 활용
 주2) 높은수준: 한-EU FTA 수준의 양허 수준을 의미
 낮은수준: 상대적으로 한/EU FTA 양허 수준보다 낮은 경우
 주3) 자세한 시나리오별 가정은 비공개

〈표1〉 호주-중국의 FTA 거시경제적 효과

| | 호주 실질 GDP 증가 구성비 (%) |
|------------------|----------------------|
| 상품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 32.4 |
| 투자 자유화 | 29.7 |
| 기타 | 40.5 |
| 총효과 | 100.0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MC투자증권

주) 호주-중국 FTA 공동연구 결과, "Model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an Australia China FTA (2005)" 재인용

〈표2〉 2012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 | 대중국 관세율 | | | | 대한국 관세율 | | |
|-----------|----------|------|-----------------------|-------------------------|---------------------|-----------------------|-------------------------|
| | 기본 세율 | WTO | 대중국 수입규모 (백만달러) | 대중국 가중 평균 관세율 (%) | MFN 최혜국 세율(%) | 대한국 수입규모 (백만달러) | 대한국 가중 평균 관세율 (%) |
| 반도체 디스플레이 | 7.7 | 3.5 | 6,566 | 0.2 | 3.5 | 38,036 | 0.0 |
| 기타 제조업 | 7.0 | 9.0 | 3,359 | 4.3 | 10.3 | 30,704 | 3.1 |
| 석유화학 | 7.2 | 6.3 | 1,683 | 4.9 | 5.9 | 20,569 | 3.9 |
| 전기전자 | 7.7 | 6.3 | 9,886 | 1.8 | 5.8 | 17,902 | 1.5 |
| 일반기계 | 7.9 | 11.2 | 4,915 | 6.2 | 8.2 | 10,630 | 6.0 |
| 정밀화학 | 7.6 | 6.3 | 5,783 | 5.3 | 6.2 | 10,273 | 5.9 |
| 통신기기 | 8.0 | 3.1 | 3,417 | 0.6 | 0.7 | 8,505 | 0.1 |
| 철강 | 7.0 | 2.8 | 11,210 | 0.8 | 6.4 | 5,083 | 5.6 |
| 자동차 | 8.6 | 11.6 | 1,463 | 7.0 | 13.9 | 4,949 | 13.4 |
| 비철금속 | 5.8 | 9.1 | 1,549 | 5.1 | 5.8 | 4,172 | 3.0 |
| 중전기 | 7.9 | 8.9 | 7,506 | 6.7 | 7.0 | 3,733 | 3.9 |
| 생활용품 | 7.4 | 8.6 | 5,832 | 6.2 | 10.9 | 3,239 | 7.2 |
| 디지털 가전 | 7.9 | 10.0 | 2,987 | 4.5 | 13.3 | 2,778 | 5.7 |
| 섬유 | 9.9 | 19.2 | 5,303 | 9.9 | 11.3 | 2,646 | 8.8 |
| 조선 | 4.8 | 6.5 | 1,112 | 0.3 | 7.2 | 1,310 | 3.0 |
| 기타 | 13.9 | 20.4 | 6,257 | 11.2 | 11.1 | 1,072 | 10.9 |
| 비금속광물 | 7.7 | 13.4 | 1,619 | 7.7 | 11.6 | 241 | 10.2 |
| 의료기기 | 8.0 | 6.2 | 148 | 7.0 | 4.2 | 219 | 4.3 |
| 의약품 | 6.8 | 2.2 | 165 | 6.8 | 4.8 | 123 | 3.5 |
| 항공 | 2.6 | 2.5 | 8 | 1.9 | 1.8 | 16 | 1.0 |
| 전체 | 9.2 | 11.5 | 80,768 | 4.6 | 9.2 | 166,199 | 3.2 |

자료: 산업연구원, HMC투자증권

〈표3〉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대상국 및 경제권 | 발효 시기 |
|--|----------------------------|
| 홍콩·마카오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2004 |
| 칠레 | 2006 상품, 2010 서비스, 투자 |
| 파키스탄 | 2006 상품, 2007 서비스, 2009 투자 |
| 뉴질랜드 | 2008 |
| 싱가포르 | 2009 |
| 페루 | 2010 |
| 대만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 2010 |
| 코스타리카 | 2011 |

자료: 산업연구원, HMC투자증권

〈표4〉 2012년 중국의 국가별/대분류별 주요 관세율

| | 홍콩 | 마카오 | 칠레 | 파키스탄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페루 | 대만 | 코스타리카 | 평균 | 한국 |
|--|------|------|------|------|------|------|------|------|-------|------|------|
| 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 7.7 | 10.4 | 2.5 | 7.8 | 0.5 | 0.0 | 6.3 | 10.3 | 6.1 | 5.7 | 10.3 |
| 2부 식물성 생산물 | 12.0 | 10.6 | 2.6 | 8.3 | 2.0 | 1.5 | 7.5 | 12.5 | 7.7 | 7.2 | 11.3 |
| 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납 | 10.8 | 3.8 | 44.1 | 12.3 | 3.4 | 1.7 | 8.7 | 12.6 | 7.5 | 11.7 | 12.3 |
|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10.5 | 7.2 | 3.4 | 14.2 | 1.9 | 2.1 | 12.2 | 16.9 | 10.7 | 8.8 | 16.3 |
| 5부 광물성 생산물 | 2.6 | 2.7 | 0.4 | 0.9 | 0.0 | 0.1 | 0.2 | 2.6 | 0.1 | 1.1 | 2.8 |
|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물 | 4.9 | 4.7 | 0.6 | 3.2 | 0.1 | 0.2 | 0.8 | 5.5 | 0.5 | 2.3 | 5.6 |
| 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6.2 | 7.7 | 1.0 | 6.1 | 0.1 | 0.2 | 3.1 | 7.4 | 1.8 | 3.7 | 8.4 |
| 8부 원피·가죽·모피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6.1 | 9.7 | 0.6 | 8.2 | 0.3 | 0.0 | 7.4 | 11.6 | 7.2 | 5.7 | 11.4 |
| 9부 목재와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 4.4 | 4.0 | 2.2 | 3.0 | 1.5 | 2.2 | 2.1 | 4.4 | 2.0 | 2.9 | 4.4 |
| 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3.3 | 4.3 | 4.9 | 5.0 | 4.8 | 4.8 | 44.8 | 5.1 | 4.8 | 9.1 | 5.1 |
| 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5.2 | 6.6 | 0.2 | 4.1 | 0.2 | 0.2 | 5.3 | 10.0 | 4.5 | 4.0 | 10.3 |
| 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17.6 | 12.2 | 0.4 | 12.7 | 1.7 | 0.0 | 5.9 | 17.3 | 9.1 | 8.5 | 14.6 |
| 13부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 11.9 | 10.2 | 1.2 | 8.0 | 0.6 | 0.0 | 6.4 | 12.1 | 6.3 | 6.3 | 12.2 |
| 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 2.6 | 2.7 | 1.1 | 7.7 | 0.9 | 0.0 | 5.7 | 9.5 | 5.0 | 3.9 | 8.5 |
| 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 5.9 | 6.9 | 0.7 | 3.8 | 0.1 | 0.0 | 1.7 | 6.3 | 1.5 | 3.0 | 6.8 |
|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6.2 | 6.7 | 0.9 | 4.7 | 0.2 | 0.3 | 2.8 | 6.7 | 2.3 | 3.4 | 7.1 |
| 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 기기 관련품 | 12.9 | 12.8 | 0.3 | 10.1 | 1.0 | 4.4 | 8.0 | 11.6 | 5.4 | 7.4 | 12.5 |
| 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6.7 | 8.2 | 0.6 | 6.6 | 0.2 | 0.0 | 4.7 | 9.1 | 3.9 | 4.4 | 9.1 |
| 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3.0 | 13.0 | 2.0 | 3.5 | 0.0 | 0.0 | 5.2 | 13.0 | 7.8 | 6.4 | 13.0 |
| 20부 잡품 | 8.4 | 8.4 | 1.2 | 8.6 | 0.9 | 0.2 | 7.6 | 10.3 | 6.9 | 5.8 | 10.6 |
| 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5.1 | 5.1 | 0.9 | 5.8 | 0.0 | 0.0 | 3.7 | 7.6 | 4.8 | 3.7 | 7.6 |
| 22부 특수교역 품 및 분류상품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 체 | 7.2 | 7.2 | 1.1 | 5.6 | 0.6 | 0.6 | 4.2 | 8.5 | 3.7 | 4.3 | 8.6 |

자료: 산업연구원, HMC투자증권

주) 중국해관수출입 세칙을 바탕으로, 주요 FTA 체결국가의 교역 품목을 22부로 재분류하여 관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표5〉 글로벌 통화 중에서 금융 결제를 통한 선물/현물/옵션 등에 대한 체결 금액

(daily averages in April 2013, billions of US dollars)

| | Total | | Spot transactions | Outright forwards | Foreign exchange swaps | Currency swaps | FX options |
|-------|--------|------|-------------------|-------------------|------------------------|----------------|------------|
| Total | 10,687 | 100% | 4,090 | 1,361 | 4,457 | 108 | 673 |
| USD | 4,652 | 43.5 | 1,691 | 588 | 2,030 | 50 | 293 |
| EUR | 1,786 | 16.7 | 754 | 178 | 766 | 18 | 70 |
| JPY | 1,231 | 11.5 | 612 | 123 | 332 | 11 | 153 |
| GBP | 631 | 5.9 | 227 | 69 | 301 | 5 | 29 |
| AUD | 462 | 4.3 | 196 | 50 | 183 | 6 | 27 |
| CHF | 275 | 2.6 | 84 | 27 | 149 | 1 | 14 |
| CAD | 244 | 2.3 | 93 | 36 | 101 | 2 | 12 |
| MXN | 135 | 1.3 | 57 | 14 | 58 | 1 | 6 |
| CNY | 120 | 1.1 | 34 | 28 | 40 | 1 | 17 |
| NZD | 105 | 1.0 | 39 | 11 | 50 | 2 | 3 |
| SEK | 94 | 0.9 | 27 | 12 | 53 | 1 | 2 |
| RUB | 85 | 0.8 | 37 | 9 | 37 | 0 | 3 |
| HKD | 77 | 0.7 | 21 | 7 | 47 | 0 | 1 |
| NOK | 77 | 0.7 | 21 | 10 | 43 | 0 | 2 |
| SGD | 75 | 0.7 | 20 | 11 | 40 | 1 | 3 |
| TRY | 70 | 0.7 | 16 | 10 | 39 | 3 | 3 |
| KRW | 64 | 0.6 | 19 | 24 | 16 | 1 | 4 |
| ZAR | 60 | 0.6 | 19 | 7 | 31 | 0 | 2 |
| BRL | 59 | 0.6 | 11 | 34 | 1 | 3 | 11 |
| INR | 53 | 0.5 | 15 | 24 | 10 | 0 | 3 |
| DKK | 42 | 0.4 | 7 | 5 | 29 | 0 | 0 |
| PLN | 37 | 0.3 | 11 | 6 | 20 | 0 | 1 |
| TWD | 24 | 0.2 | 6 | 11 | 6 | 0 | 1 |
| HUF | 22 | 0.2 | 7 | 3 | 10 | 0 | 1 |
| OTH | 207 | 1.9 | 66 | 64 | 65 | 2 | 12 |

자료: BIS, HMC투자증권

〈표6〉 한국 수출의 표시통화별 결제 금액과 비중

(단위: 백만달러,%)

| | 달러 | | 엔화 | | 유로 | | 위안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2013/01 | 39,015 | 85.4 | 1,663 | 3.6 | 2,613 | 5.7 | 162 | 0.4 |
| 2013/02 | 35,864 | 84.7 | 1,342 | 3.2 | 2,692 | 6.4 | 148 | 0.4 |
| 2013/03 | 40,133 | 84.8 | 1,500 | 3.2 | 2,811 | 5.9 | 180 | 0.4 |
| 2013/04 | 39,258 | 85.1 | 1,443 | 3.1 | 2,644 | 5.7 | 189 | 0.4 |
| 2013/05 | 41,104 | 85.1 | 1,812 | 3.8 | 2,451 | 5.1 | 202 | 0.4 |
| 2013/06 | 40,009 | 85.7 | 1,705 | 3.7 | 2,401 | 5.1 | 247 | 0.5 |
| 2013/07 | 39,274 | 85.7 | 1,795 | 3.9 | 2,445 | 5.3 | 208 | 0.5 |
| 2013/08 | 39,951 | 86.3 | 1,564 | 3.4 | 2,541 | 5.5 | 196 | 0.4 |
| 2013/09 | 38,369 | 85.9 | 1,560 | 3.5 | 2,417 | 5.4 | 170 | 0.4 |
| 2013/10 | 42,412 | 84.0 | 1,951 | 3.9 | 3,079 | 6.1 | 197 | 0.4 |
| 2013/11 | 40,482 | 84.5 | 1,824 | 3.8 | 2,922 | 6.1 | 218 | 0.5 |
| 2013/12 | 40,977 | 85.4 | 1,605 | 3.3 | 2,748 | 5.7 | 196 | 0.4 |
| 2014/01 | 38,626 | 84.7 | 1,447 | 3.2 | 2,843 | 6.2 | 164 | 0.4 |
| 2014/02 | 36,235 | 84.4 | 1,450 | 3.4 | 2,760 | 6.4 | 197 | 0.5 |
| 2014/03 | 42,654 | 85.8 | 1,483 | 3.0 | 2,899 | 5.8 | 208 | 0.4 |

자료: 한국은행, HMC투자증권

주) 비중은 한국의 총수출 금액 대비 해당통화 결제 비중을 의미

〈표7〉 한국의 對 중국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기간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무역수지 |
|---------|--------|-------|-------|
| 2013.01 | 11,425 | 7,321 | 4,104 |
| 2013.02 | 10,388 | 5,520 | 4,868 |
| 2013.03 | 11,686 | 6,928 | 4,758 |
| 2013.04 | 12,137 | 7,499 | 4,638 |
| 2013.05 | 12,481 | 7,289 | 5,192 |
| 2013.06 | 11,399 | 6,462 | 4,937 |
| 2013.07 | 12,882 | 7,106 | 5,776 |
| 2013.08 | 12,474 | 6,550 | 5,924 |
| 2013.09 | 11,940 | 6,617 | 5,322 |
| 2013.10 | 13,153 | 7,443 | 5,710 |
| 2013.11 | 12,920 | 7,247 | 5,673 |
| 2013.12 | 12,986 | 7,072 | 5,913 |
| 2014.01 | 11,489 | 7,503 | 3,986 |
| 2014.02 | 10,766 | 5,785 | 4,981 |
| 2014.03 | 12,191 | 7,599 | 4,592 |
| 2014.04 | 12,416 | 7,916 | 4,500 |
| 2014.05 | 11,309 | 7,521 | 3,788 |

자료: KITA, HMC투자증권

〈표8〉 한중 FTA에 따른 섹터별 영향

| 섹터 | 영향 | 코멘트 | 수혜주 |
|-------------|----|---|-------------------------|
| 화학 | 긍정 | - 현재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해 기초원료 2%, 중간원료를 포함한 기타 화학제품 5.5~6.5%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 -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석유화학제품 순수입 국가이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중 FTA로 관세 철폐시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유리. - 즉 국내 화학업체에게 긍정적. - 반면 정유업체는 지금도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 |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
| 철강 | 중립 | - 한국의 중국향 수출비중은 생산량 대비 6%에 불과 - 아시아 공급과잉의 상황에서 관세율이 없어지는 만큼 철강 수출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
| 자동차 | 중립 | - 국내공장 수출 중 중국향 수출 비중은 현대차 1.3%, 기아차 2.9%에 불과, 글로벌 판매대비 비중은 0.3%, 1.2%로 관세인하효과 사실상 미미 -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확대 가능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 소비자 인식이 넘어야할 장벽 - 중국공장서 한국으로부터 일부 부품을 조달하거나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있는 자동차부품사의 경우 그 비중에 따라 관세인하의 긍정적 효과 예상 | |
| 자동차부품 | 긍정 | - 부품 현지조달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과거보다 영향은 감소하는 추세 - 주요 자동차부품사의 매출액 중 중국관세에 노출되는 비중은 2014F 기준 현대위아 13%, 현대모비스 6%, 만도 1.5%로 추정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 운송업종 | 중립 | - 한/중 FTA로 인한 물동량 증가 제한적. 국내 항공/해운 업체 화물은 주로 미국/유럽 비중 높아 | |
| 유틸리티업종 | 중립 | - KEPCO, KOGAS 전력 가스 비즈니스는 국내 중심. FTA 영향 제한적 - 한중 FTA가 국제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
| 유통 | 중립 | - 한중 FTA 영향 없음 | |
| 음식료 | 긍정 | - 음식료 직수출 업체들 주요 제품의 관세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 가능성 긍정적 - 특히 유가공(매일유업, 빙그레, 롯데푸드 등) 업체들의 고수익 제품(분유/가공유) 수출 확대 예상 - 다만 업체별 중국 수출 비중 각각 매일유업 2.4%, 빙그레 1.9%, 롯데푸드 1.3%에 불과하고 - 2013년 분유 관세 5%(기준 20%)의 잠정세율로 하향조정되어 관세인하효과 제한적 | 매일유업 빙그레 |
| 통신/미디어 | 중립 | - 한중 FTA 영향 없음 | |
| 반도체 | 긍정 | -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혜 예상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 스마트폰 | 중립 | - 쿼터로 인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내수에 공급 | |
| TV | 긍정 | -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혜 예상 | 삼성전자, LG전자 |
| 디스플레이 /2차전지 | 중립 | - 관세 회피를 위해 국내 업체(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 경쟁사들도 전부 중국에 진출해있기 때문에 영향 중립적 판단 - 2차전지 업체들도 중국에 전부 진출 중, 큰 영향 없음 | |
| 핸드셋 부품 | 중립 | - 국내 주요 핸드셋 부품 업체의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삼성전자향(베트남, 중국) 매출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 | |
| 반도체 장비 | 중립 | - 매출 대부분이 중국내 한국업체향. - 관세에 따른 경쟁력 변화 여부 없을 것. | |

자료: HMC투자증권

Compliance Note

- 본자료는기관투자자또는제3자에게제공된사실이없습니다.
- 당사는추천일현재해당회사와관련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없습니다.
- 이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자료작성자 애널리스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